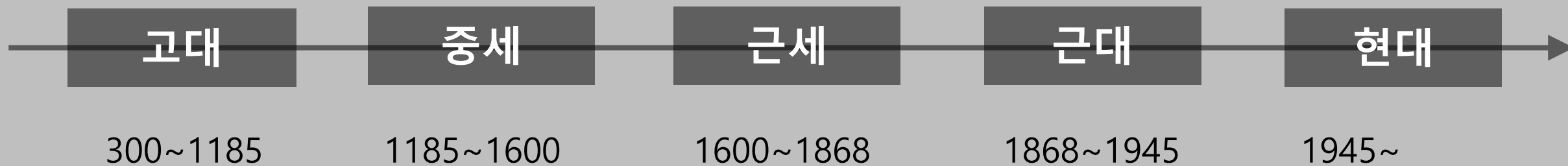



8. 열강의 접근과 국론 분열

부산대학교 2024년 여름계절수업 <일본의 역사와 문화>

조 승 미

일본사 연표





주제

- 열강의 접근과 일본 개항
- 존왕양이(尊王攘夷) 세력의 급부상

I 서양세력의 출몰

- 18C 후반 러시아의 접근
: 베노브스키1771와 라크스만1792의 일본 방문
→ 외국에 대한 공포 확산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해국병담(海國兵談)』1786
- 레자노프의 방문1804과 러시아의 습격1808
- 페이튼 호 사건1808
- 막부의 대응 방침
: 외국선박 격퇴령(無二念打拂令)1825
→ 신수급여령(薪水給與令)1842으로 전환



베링 해

오호츠크 해

쿠릴 제도

동해

일본

대한민국

江戸
の
人

江戸

の
人

江戸

の
人

江戸
の
人

江戸

の
人



I 아편전쟁의 충격

- 청의 패전으로 맺어진 난징조약¹⁸⁴²이 일본 국내에 알려짐
“이 사건은 외국의 일이지만 우리를 위한 유용한 경고로 삼아야 한다”
- 군비 개혁을 서두르며 서양의 군사 기술에 관심
→ 일본 내 난학 열풍
-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과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학교 설립





사쿠마 쇼잔

“일본이 서양 열강 제국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서는 막부와 조정이 일체가 되는 형태로 국내를
통일하고 개국을 추진해야 한다”
“조선·중국·일본의 연대로 서양문명과 대결해야
한다”



요시다 쇼인

“일본의 정체성은 천황 숭배나 양이(攘夷)에 있다”
“서양 문명과 맞서기 위해 중국 중심의 화이 질서
에서 벗어나 자립하며 서양을 배척해야 한다”



요시다 쇼인

- 사쿠마 쇼잔의 제자
- 강경한 양이론자 → 개국론자로 전향
- 막부 타도 주장
-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많은 제자 배출
- 정한론(征韓論)의 창시자

“러시아, 미국과 강화 조약을 체결한 이상, 저부터라도 조약을 파기해 서양 국가에 신용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약을 엄격히 준수하고 신의를 두터이 하여 그러한 와중에 국력을 길러야 합니다. 동시에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무너뜨려 복종시키고, 교역에서 러시아와 미국에 빼앗긴 손실을 다시 조선과 만주에서 땅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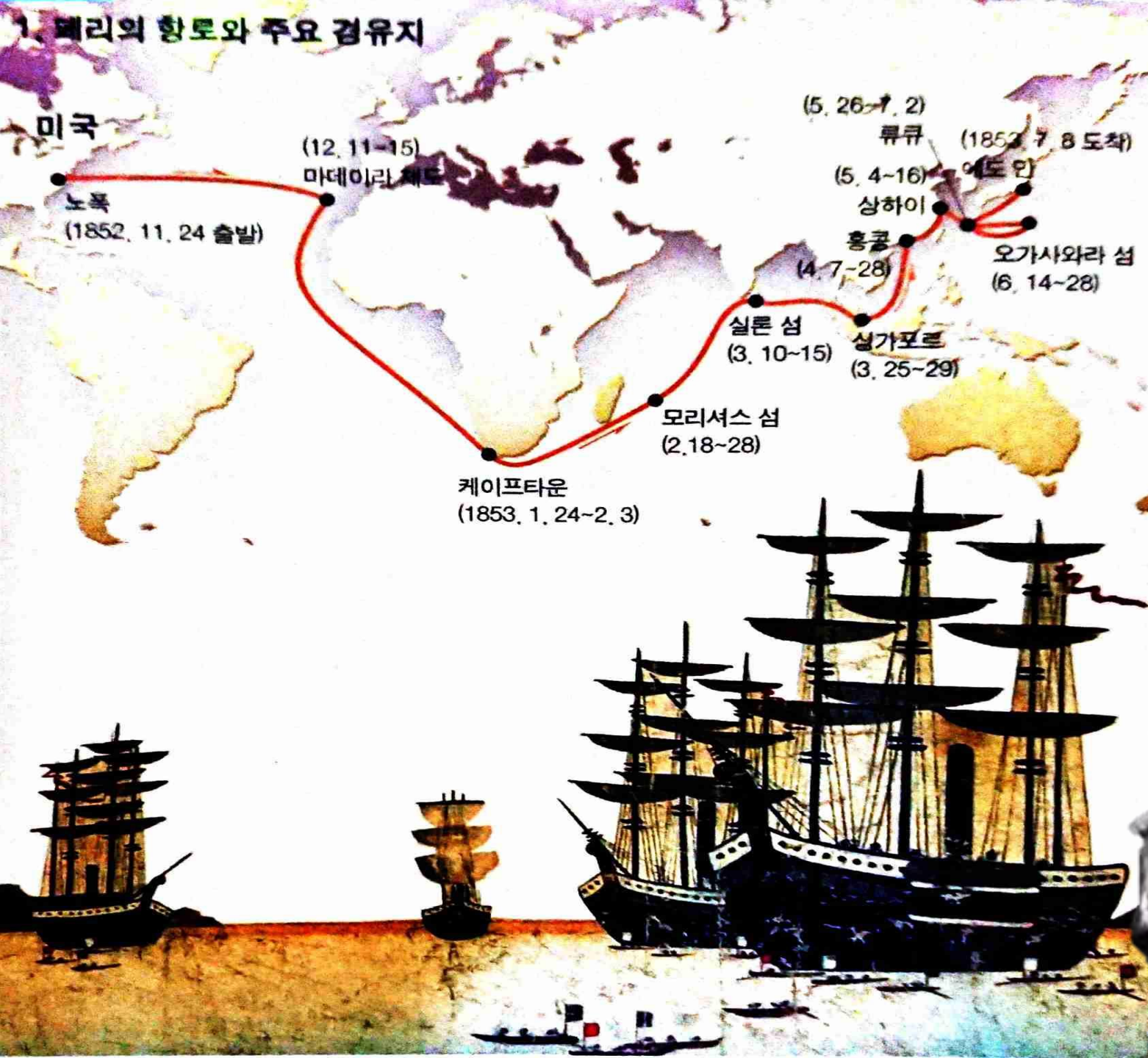




■ 흑선(黒船)과 개항

- 19C 중반 1853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의 일본 상륙
 - 미 대통령의 국서 제출하며 일본의 개국 요구
 - 잘 짜여진 조약은 다른 강대국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
 - 화친조약 1854, 수호통상조약 1858 조인
- 5개의 항구 개항
 - : 요코하마(横浜)·나가사키(長崎)·하코다테(函館)·니가타(新潟)·효고(兵庫)
- 외세의 위협으로 인한 일본의 내셔널리즘 창출
- 개국을 둘러싼 일본 내 정치적 갈등 발생
 - : 개국파 vs 양이파







에도 막부는 '무사 정권'이었기에 서양과의 무력 충돌을 극력 피했다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대두

-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수립하여 양이 실행을 주장
- 중하급 무사와 일부 유력 다이묘 중심으로 형성
- 가장 격렬히 양이를 외친 고메이(孝明) 천황
“양이는 정쟁(政爭)의 소재가 아니라 당연히 실행해야 하는 것”
- 천황의 칙허 거부 무시한 막부의 조약 승인으로 양이론자들 격화
- 로닌(浪人)의 횡행

고메이(孝明) 천황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





I 막부권력의 위기

- 페리의 내항으로 폐쇄적이었던 막부 정치의 개방
: 외교 및 국방에서 막부 독재 → 거국 체제로의 전환
- 조약 승인 및 쇼군의 후계 둘러싼 권력 갈등
: 이에모치(家茂)를 지지하는 기슈파(紀州派)
vs 요시노부(慶喜)를 지지하는 히토쓰바시파(一橋派)
- 막부의 독단적 결정과 암살 정치의 시작
: 안세이의 대옥(安政の大獄) 1858~59, 사쿠라다몬(櫻田門)의 변 1860
- 천황을 위시로 한 도자마 다이묘 세력의 부상

松平大内邸



조슈(長州)와 사쓰마(薩摩)

- 본래 막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던 서남부의 두 번(藩)
- 막부의 개국책에 반발한 존왕양이파의 선두
- 사쓰마: 나마무기(生麥) 사건¹⁸⁶² → 사쓰에이(薩英) 전투¹⁸⁶³
- 조슈: 외국선 포격 사건¹⁸⁶³ → 시모노세키(下関) 전투¹⁸⁶⁴
- 서양식 무기와 군비 개혁에 적극적
- 삿초(薩長) 동맹¹⁸⁶⁶
 -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의 주선으로 조슈와 사쓰마 사이에 맺어진 비밀 동맹
 - 막부의 무력탄압을 상정하여 어느 한 쪽이 공격받으면 서로 지원하기로 약속
 - 막부의 (2차) 조슈 토벌 실패로 이어짐

3 존왕양이파의 몰락

1차 조슈 정벌(1864. 7~12)

2차 조슈 정벌(1865. 4~1866. 8)

오쿠마 시게노부
에토 신페이

다카스기 신사쿠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조슈

시모노세키

조슈 번 외국선 포격 사건(1863)
시모노세키 전쟁(1864)

하젠

이쿠노의 변(1863)

사쓰마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사쓰에이 전투(1863)

도사

사카모토 료마
이타가키 다이스케

교토

1 존왕양이 운동의 격화

사쿠라다몬 사건(1860. 3)

사카시타몬 사건(1862. 1)

에도

나마무기 사건(1862)

2 존왕양이파의 축출

8·18정변(1863. 8)

긴몬의 변(1864. 7)



早川松止圖

시모노세키 전투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와
가츠 가이슈(勝海舟)



I 천황의 정치적 부상

- 외세의 위협에 맞서 일본의 전통 회복 꾀하는 국학(國學)의 융성
→ 살아있는 일본의 전통으로서의 천황 부각
- 막부의 정치 개방으로 발언권 획득한 천황의 강한 양이 의지
-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설 새로운 구심체로서 주목
- 반(反)막부파 세력의 중심이 되었으나 천황 자신은 막부에 협력

“막부로서는 효고 개항을 승낙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쇼군 위에 제왕이 계셔서 중대한 사항은 쇼군이라 하더라도 칙허를 얻고 나서야 시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효고 개항과 같은 일은 일본으로서는 중대한 일인 만큼 천황의 칙허를 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칙허를 청하는 데는 적어도 열흘 간의 유예가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